

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화할 것은 하나님께 대화하고, 예수님께 대화할 것은 예수님께 대화하고, 성령님께 엄마한테 대화할 것은 엄마한테 대화하고 그래야 된다고. 대화할 때 아버지랑 대화가 안 될 때는 어머니랑 대화하면 된다고. “재, 너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대. 애가 지금 밥을 못 먹겠다고 한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랴.” 그러면 쇼부가 되는 거여. 어머니도 대화가 안 통하고, 아버지도 대화가 안 돼. 그러면 나중에 형제를 통해서 하는 거여.

“아버지. 재 있잖아. 미안해서 밥을 못 먹겠대. 지금 배아픈 것이 아니고, 미안해서 밥을 못 먹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럼 나 나갈테니까 밥먹여.”

“내일 아침에는 같이 먹지요.”

“그럼 같이 먹지. 나 그렇지 않다고 한 마디해 줘라. 그렇지만 내가 한 마디 한 것은 의미가 있지.”

“맞지요. 나는 이해를 하지요.”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야. 하늘 앞에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또 형제들 또 선생님께 있지 않습니까?

또 본인이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만나기 힘들면 기도를 해버리면 끝나잖아. 만나기 힘들면 편지를 써서 주는 것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통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를 꼭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왜 못 합니까? 교회 왔을 때 예배드릴 때만 그 때만 딱 기도하면 안 돼. 새벽예배 때만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고 치자.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치자. 그리고 형제끼리 같이 산다고 치자.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얘기를 입에다 꼭 넣었다가, 머리에다 저장했다가 꼭 참고 있다가 어떻게 밥 먹을 때 다 합니까? 잠자기 전에 특별히 시간내서 하고 있습니까?

그 때 그 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특별히 밥먹을 때 하다보면 나도 하루 종일 못 했던 이야기를, 밥에서 하루 종일 일했거든. 못 했던 얘기를 밥먹을 때 했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밥이나 먹어. 밥이 다 나온다. 얼른 밥씹어야지. 밥이 다 입에서 나와. 밥먹어.”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 지금 말 듣느라 밥을 못 먹고 있어.” 그거여. 다시 말해서 그 다음부터는 생활 가운데 밥을 갈 때 얘기해 주고, “사실상 이 놈의 풀이 많이 나는데 풀을 많이 갖다가 넣고 하니까 이 풀씨가 떨어져서 풀이 나는 거 아냐?” 그렇지. 옛날에는 밭에 풀이 없었거든. 그런데 풀이 자꾸 잡초를 베어다가 자꾸 넣으니까 씨가 떨어져서 밭에 잡초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고. 그 전에는 잡초가 그렇게 없었대요. 그런데 잡초가 자꾸 생긴대네. 그 잡초가 그 씨가 맺기 전에 베다가 넣으면 된단말여. 그러면 훨씬 덜 하다.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입이 아플 정도로 대화를 한 거여.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대화할 것을 못 해놓고, “자기 전에 하자.” 자기 전에 그렇게 오래 하나.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자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를 계속 해야 합니다. 평소에 인생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하나님과 심각하게 대화를 해야 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들려와서 걱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가르쳐 줄게요. 선생님은 기준자가 아닙니까? 가까이 하늘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주님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아세요?” 하면 “얘기를 해. 나는 다 들으니까. 옆에서 듣는데.” 그죠? 속으로 입막고 소곤소곤 해도 다 들린대요. 마음으로 마음만 딱 먹고 있어도. 내가 그전에 교회에 다닐 때 얼마나 괴팍스러웠는지 압니까? “예수님. 내가 딱 무슨 마음 먹었다.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니가 알듯이 나 알고 있어. 그렇지만 기도를 하라는 거여.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 사람이 마음만

먹고 있으면 뭐 하나? 대화를 해야지. 그래서 대화를 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고 있어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하고 얘기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 자식이 그 애인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도 얘기를 할 때 좋아하는 거여. 얘기를 해야 돼. 서로 알아도 얘기를 해야 되요.

하나님께는 일단 얘기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냥 못 있겠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늘 얘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모두 모았다가 얘기를 합니까? 속이 터지게, 열불나게. 그죠? 즉시 바로 해야 됩니다. 즉시 바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어디를 갔든지, 옷을 입었든지, 뭘 하든지 들으면 바로 얘기를 해줘야 해. 방금 들었다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 전혀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여. 자기만 딱 하면 되니까. 진실로 “선하신 하나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여. “하나님 우리는 애인이잖아요. 애인같이 사랑하니까.” 딱 즉시 얘기를 해야 해. 또 없으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혹시 모르니까 또 기도해 놓고, 성령님께도 기도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되는 거여. “하나님. 나 방금 죄지었는데 어떻게 하죠? 불만불평했는데 어떻게 하죠? 불만불평하다가 또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꼭 해 줘야 돼.

그러면 “야! 회개했는데. 일단 회개한 걸로 되어 있거든. 일단 고했으니까. 자수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괜챦단말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다 기도해 놓으면 놀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못 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면 너무 커요. 본인이 못 하니까. 기도해 주어라. 도와주어라. 그 말이거든. 도와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아파서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밥을 못 먹어. 어디 아파서. 대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도록 대신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본인도 기도해 준 것을 알아야 되겠고.

반드시 남을 위해 기도를 해줘라.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줘라. 흑암으로 간 사람이 기도하겠냐. 사망 권으로 가서 하루 종일 투덜대는데 그것을 갖고 기도하겠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누구 기도를 해 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100% 받으세요. 그 기도를 100% 받으시고, 천사보내서 돌이키게 하고 이끌어 내도록 하라. 거기서 딱 나오잖아. 물 속에 있으면 계속 투덜대잖아. 물 속에서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세계를 끄집어 내는 거여. 그들은 그렇게 못 하니까 계속 하는 거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충격을 일으켜.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세계를 기도한 것 때문에 움직인단 말여.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수백명, 수천명 지구 한 나라 기도하니까 그 기도로 인해 돌아간단말여. 이사가 선지자도 기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딱딱 끊었잖아요. 요나 선지자도 요나 하나 기도했는데 12만명 기도 안 했는데 요나가 먼저 기도했을 때 그 살린 조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도하게 해줘서 다 돌이키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의 충격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금기도도 해 주고, 축복기도도 해 주고, 축도까지 해 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마침기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저제도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감격하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기뻐하는 자들인 줄을 잘 압니다. 늘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과 온 지구촌의 각 나라 위에 천주교 위에 그리고 기독교 위에 개신교 위에 우리들 위에 각 모든 침례교 할 것 없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회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들도 내가 만나보니

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아브라함을 믿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지구상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까지 늘 살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늘 대화를 하시는데 우리들이 대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해서 지구촌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모든 안 믿는 사람까지 이런 기도하는 우리들 간구를 들으사 다 평탄케 해 주시고, 의로운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뀌어 20세기부터의 평화의 역사로 지상천국이 계속 되어 돌아가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환란과 어려움을 평화롭게 다 잡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힘든 사람들도 다 풀어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 하고 영원할찌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안녕을 고하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